

September 29, 2006

한겨레 THE HANKYOREH

9/29 한겨레
메르켈은 박근혜의 미래?

단독 면담...박 전 대표 "독일식 우파개혁 공감"

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8일(한국시각) 첫 독일 여성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, 한-독 관계의 발전 방향과 여성 정치지도자로서의 경험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.

두 사람의 만남은 6년 만으로,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이던 지난 2000년 독일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의 당수인 메르켈을 만난 적이 있다.

같은 여성에다 전자공학(박 전 대표)과 물리학(메르켈 총리)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, 야당 당수로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한 경력, 한 번 결심하면 일엔 '황소 고집'이라고 할 만큼 주장을 꺾지 않는 성격 등 두 사람은 적지 않은 공통점을 지녔다.

독일 베를린의 총리 집무실에서 30분 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된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표는 △친기업 정책 △복지 축소 △친미 외교노선 등 메르켈 총리의 '독일식 우파 개혁'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 박 전 대표는 "메르켈 총리의

개혁은 내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추구한 노선과 같다"며 "외교정책 역시 실리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"고 말했다고 수행한 의원들이 전했다.

박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, 나토(북대서양조약기구) 방위체제에 속한 독일이 한-미 연합사령부 해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견을 묻기도 했다. 두 사람은 또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분단 해법 등에 관해서도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"이번 면담은 박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책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다듬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의 표현"이라고 말했다.

메르켈 총리와 면담을 한 뒤, 박 전 대표는 아데나워재단에서 '독일과 한국,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'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.

베를린/성연철 기자 sychee@hani.co.kr



유럽을 방문중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(오른쪽)가 28일 오전(현지시각)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(왼쪽)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. 베를린/연합뉴스

September 29, 2006**한겨레**
THE HANKYOREH

Übersetzung

Folgt Park Guen-hye Merkels Vorbild?

Diese Frage warf Park Geun-Hye,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der Grand National Party (GNP) während ihrer Rede mit dem Titel „Deutschlands und Koreas gemeinsame Zukunft“ in der Konrad-Adenauer-Stiftung in Berlin auf. Zusammen mit mehreren Abgeordneten und dem KAS Landesbeauftragten für Korea, Marc Ziemek, nahm sie mehrere politische Termine in Deutschland und Brüssel wahr.